

## 중국 공산당의 사고특성은 무엇인가? (런재 5)

### (5) 신(神)을 부정하고 인간성 말살

공산당은 줄곧 무신론을 선전해 왔으며 종교는 인민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공산당이 통치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종교를 탄압하여 소멸시키거나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 후 다시 자신을 '신(神)'격화 시키는 운동을 시작하여 결국 공산 사고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당은 종교를 파괴하는 동시에 전통문화도 파괴하였다. 전통, 도덕, 인간성 등을 봉건, 미신, 반동으로 규정하고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제거하였다. 문화대혁명 운동에서는 부부가 서로 고발하고, 학생이 선생을 때리며, 부자(父子)가 반목하고, 홍위병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반역자를 폭행'하는 등 중화민족의 전통을 위반하는 추악하고 난잡한 현상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인간성을 말살시켰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공산당은 소수 민족들에 대하여 공산당 지도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많은 민족의 문화가 상실되거나 변이(變異)되었다.

89년 6.4 천안문 사건 때 '인민의 자제(=인민해방군)'들이 저지른 '도시학살[屠城]'행위는 국민들에게 중국의 정치 미래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게 만들었으며 그 후로 중국의 전 국민은 '돈'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진선인(眞善忍)을 적대시 한 결과 사회도덕은 빠르게 아래로 미끄러질질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토지, 금전, 물자 등에 대하여 대량 약탈에 나서 많은 민중들이 로숙자로 전락했으며 상방(上訪)인원이 급격히 증가했고 사회모순이 격화되었다. 대규모 항의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군경(軍警)의 폭력과 무장병력에 의지해서야 비로소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민공화국'의 파쇼적 성격이 돌출되었다. 반면 사회는 더 이상 도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다.

예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까운 친지들을 해치진 않았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사기 치는 것이 사회기풍으로 되었다.

이것을 '살숙(殺熟)'이라고 한다.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정절(貞節)을 중시했으나 지금은 '가난한 사람은 비웃어도 창녀를 비웃는 사람이 없는 사회'로 변했다. 이전에 의사와 교사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덕지사(有德之士)였으나 지금 병원에서는 환자를 못살게 굴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장 못살게 군다.

중국 민족의 인간성과 도덕이 파괴된 역사를 알려주는 민요가 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50년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60년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70년대 사람들은 서로 서로 속이고 80년대 사람들은 자신만을 돌보며 90년대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철저히 벗겨 먹는다."

### (6) 무력으로 권력탈취, 경제 전횡, 정치경제적 야심

공산당의 성립 목적은 바로 무력(武力)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국유제와 독점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공산당의 야심은 너무나 커서 일반 사교(邪教)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국가권력기구 위에 이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각급 당 조직이 있다. '공산당 부처'가 모든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직접 각급 정부에서 경비를 빼낸다. 마치 흡혈귀처럼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에서 생산된 수많은 돈과 재물을 약탈했다. (끝)



## 중공의 폭력을 제지시키고 박해원흉을 처단하자!



지난 9월25일, 각국지도자들이 연합국총부에서 천년발전 목표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거행했다. 9월23일부터 25일까지 파룬궁학원들은

연합국과 중국총리 온가보(温家宝)가 숙박한 월도브호텔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인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고 회의에 참석하러온 온가보와 수행인원들에게 중국에서 가심화하고 있는 파룬궁학원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즉각 제지시키고 괴수 강택민, 라간, 류경, 주영강 등을 처단하라고 호소했다.

지난 9월 20일, 홍콩파룬궁학원들은 ‘중공의

폭력을 제지시키고 박해원수를 처단하자”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대시위대행진을 거행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파룬궁학원 3192명이 박해로 사망되었고 500 여 명이 18년 이상의 판결을 받았으며 수천 명이 생체장기적출을 당했다.



### “3룩사건”을 덮어 감춘 내막



최근, 3룩독우유가루(三鹿毒奶粉)사건은 중국 백성들이 처한 처지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위생부에서 발표한데 의하면 신장결석에 걸린 어린이는 5만3천명이다. 해외매체에서는 피해자가 600만 명이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하북성 부성장 양송용이 최근에 발표한데 의하면 3룩우유가루에는 2005년부터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4년에 안휘성에서 “대두병” 비극이 나타났을 때 3룩젖가루는 “부양시젖가루불합격명단”에 들어갔기에 각지 상인들은 수매계약을 취소했던 것이다. 바빠맞은 3룩집단은 하북성위와 결탁하여 다시 판매허가를 받았다.

금년 8월초, 뉴질랜드 항천연합작집단에서는 3룩우유가루속에 멜라민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되돌리겠다고 중국정부와 교섭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9월8일에 뉴질랜드 녀총리 크라크가 직접 나서서 중국정부에 강력히 제출하자 중공은 9월11일에 되받겠다고 답복했다. 이렇게 “3룩사건”을 덮어 감추고 40일동안 지연시켰다.

‘3룩우유’는 연속 15년 동안 판매량이 전국에서 제일이었고 또한 국가 ‘검사면제상품’ 이었다. 2007년 중국우유제품업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을 받았다. 중공독재집단은 백성의 “은인”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이 관심 하는 것은 “올림픽”과 자신의 “국제형상”이었으며 백성의 리익과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 고용용이 학살된후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감시 제어를 받고 있다.



고용용(高蓉蓉)(위 왼쪽 사진)은 “찢싸런”파룬따파를 신앙한 리유로 2004년5월7일 로교소에 갇혀 악경들의 전기충격을 받아 얼굴에 상처를 받았고(위 오른쪽 사진) 2005년6월16일에 비참히 학살되었다.

고용용이 학살된 1년후 그의 부모와 언니는 여러부문에 가서 상방했지만 아무런 답복을 받지 못했고 각 부문에서는 서로 책임을 밀어버렸다. 중병에 걸린 그의 부친을 시종할수 없어 그의 부모는 북경에 있는 딸집으로 갔다. 심양시 “610”과 고용용의 소속파출소에서는 고용용식구들의 이름과 유관정보들을 컴퓨터에 넣고 감시, 제어했다. 고용용언니의 딸은 캐나다대사관 류학비자를 맞았지만 중공국가안전국에서는 “검은 명단”에 넣었기에 출국 못하고 있다.

올림픽기간 료녕의 파룬궁수련자의 신분증번호를 컴퓨터에 넣어 심양시 각 교통운수역과 기차역의 매표구와 출구에서 수유의 려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했다. 파룬궁수련자라면 표를 팔지 않았으며 표가 있더라도 차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2008년8월중순, 고용용어머니는 심양에 와서 집수리를 하고 북경으로 되돌아가려고 심양, 기차역에 왔다가 저지당해 북경으로 갈수 없었다.